

한울타리

보스톤한인교회 소식지
KCB Newsletter
Vol. 46 No. 3 2016. 10. 16
편집: 홍보 위원회



2016
10

제작임직식
당회소식
세례자 신앙간증

전교인 수양회
위원회소식
행사 및 광고

쉐마의 밤
부서소식
화보

권두언

이영길 목사

가을의 교훈

벌써 9월 가을이 찾아 오는 계절입니다. 아니 단풍이 찾아 오는 계절이라고 말해도 좋을 줄 압니다. 뉴잉글랜드의 단풍을 보면서 모두 탄성을 지르게 됩니다.

“와우”, “어쩌면”, “저기 저 나무 좀 봐. 너무 아름답네.” 우리는 나무를 향하여 아름답다는 말을 연발합니다. 이번 가을 단풍을 보면서도 마음껏 나무의 아름다움을 노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나무를 향하여 발하던 탄성을 종종 이웃을 향하여 발하면 어떨까요?

“와우”, “어쩌면”, “저기 저 사람 좀 봐. 너무 아름답네.” 우리는 모두 최고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걸작품들입니다.

Editors:

김한나

박신영

정은아

윤경문 목사

The Korean Church of Boston (PCUSA)

32 Harvard St.

Brookline, MA 02445

T: 617-739-2663

F: 617-739-1366

www.kcboston.org

담임목사: 이 영 길



제직임직식 (2016. 9. 18)

2016 년도 9 월 제직 안수 및 임직식

9월 18일 주일 제직 안수 및 임직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이번에 신임 장로 두 분, 권사 세 분, 안수 집사 일곱 분이 새롭게 안수, 임직 받았습니다. 신임 제직들을 지난 6개월간 이영길 목사님과 함께 제직 안수교육을 잘 마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도록 부름받아 온 교우가 축하하며 격려했습니다. 신임 이유택 장로는 기획운영위원회를, 한문수 장로는 정의 평화 환경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장로: 이유택, 한문수

권사: 고경아, 김영숙, 이정숙

안수집사: 김명은, 김희현, 곽서영, 남궁원, 이성희, 정은아, 정하균

전교인 여름 수양회를 돌아보며...

수양회 준비팀 김동규 집사

지난 8월 19일에서 21일에 걸쳐, 174명의 보스톤한인교회 3세대가 한 장소(필그림파인수양관)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님안에서 교제하면서 2박 3일의 복된 시간을 보냈습니다. “행복한 동행”이라는 주제로 이건호 목사님(그린빌한인장로교회)께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와 어떻게 해야 주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지를 많은 성경 구절과 자료들을 통하여 알려주셨습니다. 5번의 주제강의 (예배)를 통해 ‘행복한 동행’, 소제목으로 ‘하나님과의 동행, 동거, 동심, 동향, 동역’이라는 제목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으니까와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이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배우고 깊이 생각해볼수 있는 귀한 회개, 성찰의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수양회는 강사 목사님의 5번의 주제강연 일정 외에도 신앙워크샵 프로그램을 예전과 같이 김건철, 이요한 목사님 두 분께서 준비해주셨습니다. 김건철 목사님께서 ‘그리스도인의 진

면목'이란 주제를 놓고, 그리스도인은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놓고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해와 올바른 모습을 찾아보고 교회 생활에 있어서 '선교의 위치'에 대해서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요한 목사님께서 '예수님이 오신다. 나무를 심어라!'라는 제목으로 성경에 등장하는 종말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자세가 무엇인지 묵상해 보고 종말론에 대한 건강한 이해와 부활/심판을 통한 하나님의 정의, 사랑, 은혜의 계획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참석한 여러 교우들은 신앙워크샵을 통해 '그리스도인'과 '선교' '종말론과 부활 심판'을 새롭게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고, 그동안 제자리 걸음처럼 느껴지던 신앙생활에 활기를 되찾게 되었다고 신앙워크샵 프로그램에 크게 만족했습니다. 해마다 수양회를 찾는 이유가 가슴이 빠근하게 기도하고 찬양하는 벽찬 감격 때문이라는 한 교우님들의 고백처럼, 올해도 토요일 저녁, 전교인 찬양과 기도의 밤은 뜨거운 고백과 회개, 감사의 기도로 수양관을 가득 채웠습니다.

또, 지난 수양회에 이어 더욱 풍성해진 '배움공동체' 프로그램을 토요일 오후 1시간 30분내외로 원하시는 교인들을 대상으로 배움, 취미 공동체를 운영했습니다.

찬양과 발성법(조유미집사), 테니스강습(정재원 집사), 패션(이경자집사), 지압(최정환 집사)의 강의를 통해 교우들은 각분야의 전문가들에게 깊이있는 조언과 실력향상의 비법을 배워보는 보람된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석한 교우들은 배움의 시간이 짧다고 못내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전문가에게 특별 레슨을 받은 흐뭇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번 수양회는 어린이 프로그램을 한공간에서 운영하였고, 중고등부는 자체 수양회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어린이 프로그램은 먼저 최지상 목사님의 4번의 설교와 김수영 전도사님과 여러 봉사자 교사들께서 어린이들이 함께 모여 서로 게임을 가르쳐주고, 놀아주는 즐거운 2박 3일을 보냈습니다. 봉사교사로 여러 청년부 형제 자매들과 일반 교인 분들께서 어린이 프로그램을 섬기셨습니다. 중고등부는 자체 수양회 프로그램 가운데 그 어느 부서보다도 많은 기도와 뜨거운 신앙고백의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2016년 수양회는 174명의 수양회 참석인원으로 지난 몇 년의 수양회 중 가장 많은 교인들이 참석하였지만, 여러 교인 분들의 양보, 배려하는 마음으로 방이 부족하거나 방배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부족한 가운데서도 조정이 가능했으며, 또한 수양관측의 계속적인 도움으로 2박 3일 내내 안전하고 원활한 수양회의 진행이 가능했습니다. 여러 교인 분들과 수양관측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월 봄부터 준비했던 이번 수양회를 위해 일손을 아끼지 않으셨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수양회를 통해 수고하셨던 분, 함께 수양회에 자리하셨던 모든 분들께 하나님을 향한 즐거운 찬양과 감사의 고백이 끊임없이 흘러나오기를 기도 드립니다.

수양회의 주인이 되셔서, 저희들과 함께 섬기시고, 기쁨을 부어주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3 세대가 함께하는 쉼마의 밤 (9/24)...

지난 9월 24일(토요일) 쉼마의 밤이 열렸습니다. 쉼마의 밤은 3세대가 함께 모여 찬양과 기도, 말씀으로 하나되는 시간입니다. 이번 쉼마의 밤에서는 '한 민족, 한 가족'이란 주제를 가지고, 한 가족인 조국, 남/북한을 위한 기도의 마음으로 다양한 순서가 있었습니다.

쉼마 찬양, 어린이 축복의 시간에 있어서, 통일을 염원하는 Free Bird 팀(김효인, 김효경, 이보나, 한기영)의 Multimedia Dance performance 로 “Home, Sweet Home”가 있었습니다. 이 Free Bird 팀은 보스톤에서 열렸던 통일안보부 주최 행사에서 1등을 수상하여 한국에 초청받아 연주를 하여 ‘안보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현악 3중주(조영지, 김지은, 박초롱)의 ‘사명’ 연주가 있었고, 아울러, 홍성환 교우의 탈북자를 위한 사역 이야기 간증과 이영길 담임목사님의 메시지가 이어졌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3세대와 함께 불렀고, 이웃과 조국을 위한 기도를 드리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당회 소식

2016년 7월 당회는 교회건물 수리건에 관해 토의하고, 교회 60년사 발간과 배포과정에서 역사편찬위원회를 통해 전달받은 한국의 옛교우 헌금을 영어회중 모임의 설립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016년 9월 당회는 신임 제직 임직건을 인준하고, 국내선교위원회의 미 원주민 선교단 파송건과 영어회중 모임건에 대해 논의했고, 또한 건물관리위원회에서 진행하는 본당 지붕수리를 이번 기회에태양전지 패널을 동시에 설치하여 전기료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을 기획운영위원회/집사회와 함께 연구하여 진행하는 논의 등을 했습니다.

각 위원회 보고 요약

건물관리위원회에서는 친교실의 노후된 대형 창문을 교체했고, 본당 지붕수리를 하면서 동시에 태양전지 패널을 설치하여 전기료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을 기획관리위/집사회와 함께 연구하고 있습니다. 교인 1부 위원회는 9월에 있을 새교우 환영반에 대해, 교인 2부 위원회에서는 전교인 여름수양회에 대해, 해외선교 위원회는 니카라과 교육선교 (6월)와 도미니카 공화국 교육선교 (7월)의 재정지원과 10월 8일에 있을 북한선교 간담회와 과테말라 선교답사 계획에 대한 보고를 했습니다. 홍보위원회는 교회 웹사이트 홈페이지 업데이트와 2017년 달력주문에 관해, 역사편찬위원회는 보스톤한인교회 60년사의 배포현황과 온라인판과 eBook에 대해, 집사회에서는 상록회 야유회와 전교인 야유회, 그리고 가을 교회 대청소에 대한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교육 1부, 2부 위원회, 국내선교위원회와 정의평화환경위원회의 보고는 한올타리 소식란에 실었습니다.

각 위원회 소식

국내선교위원회

위원장 이선영 장로

1. 뉴멕시코 Native Americans 단기 선교 파송 (12/25/2016 - 1/2/2017)

국내선교위원회에서는 올해 2016년 12월 25일 부터 내년도 2017년 1월 2일까지 뉴멕시코의 앨버커키 근교의 어메리칸 원주민들을 (나바호 부족) 위한 단기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15년째 나바호 부족들을 섬기고 계신 이덕재 선교사님이 운영하고 계시는 나바호 청소년들을 위한 Christian Vision Academy (LaJara, NM)에서 숙식을 제공받으며 그곳에서 차로 1-2시간정도의 거리에 위치한 Cuba, NM와 Ojo Encino, NM의 나바호 커뮤니티의 어른들과 어린이들을 위한 겨울 방학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에 답사갔을 때에 선교사님께서 사실 아무도 오지 않는 겨울방학 동안에 단기선교팀을 보내주시기를 바라셔서 작은 규모의 정예부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바호 부족은 예술적인 감각이 뛰어나 수공예와 음악을 즐기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덕재 선교사님께서서는 원래 나바호 청소년들을 위한 직업학교를 계획하고 계셨지만, 이러한 이유때문에 작년부터는 계획을 변경하여 나바호 청소년 예술학교를 준비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 단기선교 프로그램은 어른들과 어린이들을 위한 Winter Arts Camp 로 준비하고 있으며 현재 보스턴에서 피아노 교사와 작곡가로 활동하고 있는 두 지체가 음악 캠프를 준비하고 있고, 그 중 하나는 오카리나 연주와 음악이론 수업입니다. 잠정적으로 사진수업과, 한국음식을 만들고 배우는 수업, 또 Sing Along (노래교실) 수업과 arts and crafts 수업, 또 무술 수업 (태권도, 등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함께 수업을 진행하시거나, 먼곳에서 오는 나바호 어린이들을 위해 요리나 운전으로 섬기실 멤버들을 찾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가슴 속에 "이번 크리스마스는 뉴멕시코에서 함께 보내는 것이 어떨겠니?"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면, 우리 함께 뉴멕시코로 떠나기로 해요(!)

현재 단기 선교 준비팀은 한 달에 한 번 씩 준비모임을 가지고 있으며 팀 멤버들이 확정되면 좀 더 자주 모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016 년 10 월 16 일 주일 2 부예배 후에 뉴 멕시코 어메리칸 원주민 단기선교 오리엔테이션이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모든 분들께서 오셔서 어메리칸 원주민과 이번 단기선교에 대해 함께 배우고, 기도하고, 참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국내선교위원회에서는 10/23 일(주일)부터 단기선교 기금 마련을 위한 바자를 시작합니다. 캐나다 Gitxsan 원주민 자립과 선교를 위하여 세워진 Gitxam 회사의 품목인 차가버섯과 고사이, 송이버섯을 판매합니다. 판매 금액의 50%를 Grace Charity Foundation 으로부터 matching fund 로 후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바자를 통해 모은 기금으로 뉴멕시코에 있는 원주민 선교사역을 돕고자 합니다. 바자 물품은 계속해서 주문을 받습니다. 많은 참여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문의 사항: 이선영 장로, 이해원 집사).

2. 지역 사회를 위한 선교: Oasis Café Music night

부르클라인과 보스턴 지역 주민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국내선교위원회 주최 Oasis Café Music Night 이 10 월 8 일(토) 열렸습니다. 이번 Oasis 에서는 “What Is Noise”란 그룹을 초청하여, 보스턴과 관련있는 작품들을 연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그룹은 지역사회와 음악의 관련성을 강조하며 Outreach 하는 그룹으로, 피아니스트로는 청년 2 부의 박초롱 교수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 Oasis 는 11 월 5 일(토)에 오후 7 시에 “Musical Talk Show-Musically Yours on Broadway”란 제목으로 열리겠습니다.



역사편찬위원회 - 옛 교우님들께 드리는 감사의 글

위원장 박신영 장로

한국에 계신 옛 교우님들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고국에 계신 옛교우님들께 충만하시길 빌면서 문안드립니다.
일전에 옛 교우님들께서 보스톤한인교회 60 년사의 출판을 계기로 서로 만나 교제를 나누시고 뜻을 모아 교회를 위해 기금 3 천불 모금해서 보내주셨습니다. 김장환 교수님께서 직접 방문하셔서 전달해 주셔서 많은 교우님들의 반가움과 감사가 더욱 컸습니다. 당회에서는 보내주신 기금 3 천불을 뜻있게 사용하기 위해 심사숙고한 끝에 제 2 의 회년을 바라보며 다음 세대의 교육을 위해서 사용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현재 당회내에서 영어예배부 (English Ministry: EM) 설립을 위해 Task force 를 만들어 힘쓰고 있는데, 이를 위한 seed fund 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보스톤 한인교회의 첫 회년의 역사를 성취하는데 큰 수고를 하셨던 옛 교우님들의 귀한 헌금이 제 2 의 회년을 향한 새 세대를 교육하는 사업을 위해 사용된다는 것은 큰 의의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온 교우들과 당회원들의 마음을 담아 헌금에 참여해 주신 모든 옛 교우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국에서도 보스톤한인교회를 기억하고 늘 기도해 주시는 옛 교우님들의 사랑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보스톤한인교회가 지역사회와 세상을 향해 선교와 섬김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아름다운 제 2 의 회년을 맞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주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위원장 박신영 장로 드림

정의 평화 환경위원회

10 월 9 일 정평환에서는 북한 선교 사역을 하셨던 Rev. Kenneth Bae 을 모시고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이날 Kenneth Bae 목사님께서 주일예배 설교를 맡아주셨고, 1 부 예배와 2 부 예배 사이에 Community center 에서 북한 선교에 관련한 세미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울러 2 부 예배시에는 중고등부, 청년들을 위해 Q & A 도 인도해 주셨습니다. 복음이 필요한 북한 동포들과 그곳에서 선교적 사명을 갖고 일하시는 분들을 위한 기도와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도 전해 주셨습니다.



부서소식

해바라기 유년.초등 주일학교

김수영 전도사

무더운 여름이 가고 아침 저녁으로 바람이 쌀쌀해지니, 보스톤의 분주한 시간, 새학년 새학기가 왔습니다. 해바라기 주일학교에서도 지난 여름의 시간들을 돌아보며 새로운 시작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2016 VBS: 먼저 여름성경학교 소식을 빼놓을 수 없겠지요. Cave Quest: Following Jesus, The Light of the World 라는 주제로 어린이 76 명과 중고등부 리더들 23 명을 포함한 46 명의 선생님들이 함께 세상의 빛 되신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 대해 배웠습니다. 매일 매일 소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또 탁구와 게임, 토론등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Hope, Courage, Direction, Love, and Power 를 경험하는 유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중고등부 리더들과 청년부 및 주일학교 선생님들께서 하나가 되어 어린이들을 섬겨주셨고, 이에 우리 어린이들은 참으로 즐겁고 뜻깊은 여름성경학교를 보냈습니다. 부모님들의 지원과 헌신들도 잊을 수 없지요. 매일 저녁 맛있는 밥을 준비해주셔서 어린이들과 선생님들이 힘을 내어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이 뿐만이 아니라, power 를 주시는 예수님이 주제였던 마지막 날 저녁에는 Empowering Prayer 라는 시간을 통해 부모님들을 초청하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주십사 여쭙었는데, 참 많은 부모님들께서 오셔서 모든 자녀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어린이들이 신앙 안에서 자라는 데에는, 참으로 많은 헌신과 눈물이 필요함을 다시 한 번 깨달으며, 수고해주신 모든 분들과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2016-17 Sunflower Teachers: 지난 8 월 마지막 주 9 명의 5학년 학생들을 Youth Group 으로



떠나보냄이 선생님들에게는 아쉬움이었지만, 어린이들에게는 ECC 채플 자리를 한 계단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새학년으로 올라가면서 새로운 선생님들을 만나게 되었지요. 올 한 해에도 주일학교를 섬기시며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어린이들과 나누기로 결심하신 귀한 선생님들을 소개해드립니다. Toddler 반에 박미정, 박해인 선생님, Nursery 1 에 이유진, 최안나 선생님, Nursery 2 에 황지현, 반아영 선생님, Kindergarten 에 박선희, 서범석 선생님, 1 학년에 정은아, 김지은 선생님, 2 학년에 Caroline Kim 선생님, 3 학년에 김하얀 선생님, 4 학년에 한상현 선생님, 그리고 5 학년에 김종희 선생님께서 맡아주십니다. 오랫동안 찬양과 율동을 맡아주시는 신보경 선생님과 찬양팀 식구들도 큰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피아노 반주에 박초롱 선생님, 드럼에 홍지형 선생님, 컴퓨터에 이호인, 장민규 선생님, 그리고 찬양을 돕고 계신 주혜미 선생님까지... 그리고 주일학교의 모든 보이지 않는 작은 일들까지 기억하시고 돌보시고 기도하시는 진정원집사님께서 계속해서 부장집사님으로 섬겨주십니다. 새로운 학년과 학기가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유익하고 의미있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기도와 사랑 부탁드립니다.

중고등부

- 5/22일에는 졸업식 파티가 있었습니다. 학부모님들이 만찬을 준비해 주시고 이영길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중고등부를 졸업한 학생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Yoojin Ahn, Maria Kim, Angela Park, Sung Ahn, and Andy Kim). 대학가서 좋은 교회에서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 6/25일에는 중고등부 찬양과 기도의 밤이 있었습니다. 학부모님들이 음식을 준비해 주시고 더불어 아름다운 찬양과 뜨거운 기도로 나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 8/16-18 에는 Kingdom Conference 가 우리 교회에서 열렸습니다. 3일동안 성경 통독하고 찬양과 예배하는 모임입니다. 보스톤에 있는 중고등부 학생들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면서 보낸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 8/19-21 에는 전교인 수양회에서 우리 중고등부는 따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렸습니다. 학생 30명과 선생님들 8명이 2박 3일 동안 뜨거운 찬양과 기도로 회복의 시간들 가졌습니다. 봄 수련회때 초대했던 구 목사님이 다시 오셔서



"+os/-os (operating

system)" 주제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먼곳에서 오신 구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 9/4 일에는 승급날이었습니다. Sunflower에 있던 5학년 아이들 6명이 올라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Fellowship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6학년 아이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 10/2일에는 중고등부 학부모 회의가 중고등부실에서 1:30 부터 있습니다. 이번연도 학부모 회장을 선거합니다. 부모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셔서 다과 나누시고 학생들의 선생님들 만나서 나눔의 시간을 하시기 바랍니다. 올해까지 학부모회장으로 섬기신 이승연 집사님께 감사드립니다.
- 마지막으로, 우리 중고등부에서는 교사로 섬기고 싶으신 분들을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스스로 교사를 하기에 부족하다고 생각하시지만, 교사를 하시는 분들은 더 많이 배우고 은혜받는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더불어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기 좋은 조언과 경험들을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더욱더 중고등부에 오셔서 말씀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2016 - 2017 중고등부 staff 는 다음과 같습니다.

찬양: 제라미 강, 6 학년: 이준석, 7 학년: 김효인, 8 학년: 방수영, 9 학년: 김용욱 집사, 10 학년: 임상희, 11 학년: 김주인, 12 학년: 샘 현, 담당 장로: 김세철 장로, 담임 교역자: 강원택 전도사, 부장 집사: 황동준 집사, 보조: 강상철 장로

청년 1 부

청년 1 부는 2016 년도 “오직 주님께 이끌려(Driven by the Lord!)”란 표어를 가지고 가을학기를 시작하였습니다. 금요찬양집회에서는 “생명의 강물을 흐르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에베소서와 여호수아서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가을학기 동산지기 리더들로는 김효인, 박민협, 방수영, 임한빈, 황용순 교우가 섬겨주고 있습니다. 가을 정기 수련회로는 10 월 28 일(금요일) ~ 30 일(주일) 샤론 수양관에서 가질 예정입니다.

청년 2 부

청년 2 부는 2016 년도 7 월부터 새로운 임원진들(회장: 박명우, 부회장: 조영지, 총무: 김지영, 회계: 임 Frank, 새교우 환영팀장: 김하얀, Mission 팀: 곽일범)들이 회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며 나누는 청년 2 부”라는 표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기뻐하며 이웃과 그 기쁨을 나누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가을학기 조별 성경공부를 위해서는 기존의 3 개의 조에서 5 개의 조로 늘려, 김영돈, 박초롱, 반아영, 엄순호, 이진희 교우가 리더로 섬겨기로 하였고, 현재 사도행전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9 월 11 일에는 세미나로는 옛 청년부 선배이신 서명구 교수님(University of Maryland)를 보시고 교육 2 부와 함께 “Business As Ministry”란 주제로 가졌습니다. 10 월 8 일에는 여름 기간 새로 온 청년들을 위한 새신 환영회를 가졌고, 10/23 일 청년부 헌신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또한, 10/30 일에는 임시총회를 갖고 총무 선출을 할 계획입니다.



부부청년부

정은아 집사

8 월을 지나 9 월을 흘러...

요즈음 날씨는 ‘한여름’을 지나 ‘여름이 여운을 남기고 간 가을’ 모드네요.

무더운 척 하다가 춥고 추우려다가 무더워지는... 참 알 수 없지만 그래도 하늘의 높이를 보니 가을 임은 확실합니다.

8 월 2 짜주쯤하여 서서히 부부청년부 식구들이 예배실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름방학을 끝내고 ‘여름특별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였지요~
여름특별예배는 여러 의미로 특별했습니다.

1 학기가 끝나고 방학을

지나 2 학기를 시작하는 것 처럼 일년의 반 사역을 마치고 다음 반 사역이 시작된다는 의미로 특별하고, 8 월 어느 날 우리 곁에서 친구로 식구로 함께 살아가던 ‘태상민 형제’가 하나님 나라로 옮기워지는 슬프지만 결국 우리에게겐 소망이 되어준 일로 인해 매 년 특별한 마음으로 부청 식구들이 모이고 있다는 의미로도 특별하고, 김건철 목사님의 주옥같은 메시지가 드디어 시작된다는 의미로도 특별한 그런 예배였습니다. 다같이 찬양과 기도, 말씀을 나누고 ‘고 태상민 형제’를 기억하는 시간을 가지며 함께 식사를 나누는 것으로 특별 예배가 진행되었습니다.

9 월에는 부부청년부에서 함께 활동하고 있는 ‘박준희/이은혜’ 가정의 베이비샤워가 있었고 베이비샤워를 마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첫째 딸 소이의 동생 둘째 딸 해나 출산 소식이 어제 따끈따끈하게 전해졌습니다. 늦은 밤까지... 부청 소식 메일에 축하메시지가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선교회 6월 낚시대회

샬롬 !!

지난 6월 18일, 오랜동안 기다리고 준비해 온 낚시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문자 그대로 구름 한점 없이 맑은 토요일 오후 1시, Cape Cod, Hyannis 선착장에 모인 14명의 회원들은 남선교회에서 미리 준비한 서브웨이 샌드위치로 배를 든든히 채우고, 잡은 고기를 담을 자루와 면장갑, 음료수 등을 챙겨 만선의 꿈(?)을 안고 승선을 했습니다.





각자 자리를 잡고 고기를 쫓아 1시간쯤 내려간 뒤, 선장의 지시로 낚싯대를 던지고 잠시 뒤 김건철 목사님을 시작으로, 여기저기에서 탄성이 나오면서 고기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홍일점으로 참석하신 이문희 집사님도 연신 낚싯대를 건져 올리고,로 수준의 조준호 장로님은 명성에 걸맞게 큼직한 Porgy 를 쉽게 건져 올리십니다. 바로 그 때, 그동안 침묵을 지키던 김준구 집사님의 낚싯대가 활처럼 휘더니 낚시업계 용어로 어린아이 만한시커먼 Sea Bess가 올라오면서 분위기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회장님이 정성껏 준비해오신 수박은 먹을 짬도 없이, 4시간 동안 따뜻한 햇살과 시원한 바닷 바람을 맞으며 회원 간에 즐거운 교제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가족을 포함한 좀더 많은 회원들이 참석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행사였습니다. 다음에는 가족 피크닉을 포함한 좀더 알찬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앙간증문 (7 월 3 일 세례자)

강모영/박선영 (유아세례자: 강세훈)

먼저 저희 가정에 유아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좋은 교회, 목회자 , 그리고 교우들을 만나게 해주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세훈이를 가지게 된 것은 저희 부부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느끼며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희들의 삶을 깊이 살펴보시는지를 알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저희 부부는



늦은 나이에 결혼을 했으며 또한 둘 다 학업 중이었기에 아이를 가질 생각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졸업과 동시에 둘 다 취직이 되었으며, 또한 몇 달 후 세훈이를 가지게 되었던 이 모든 사실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으며 항상 저희 가정에 함께하심을 새삼 깨닫는 소중한 은혜에 시간들이었습니다.

세훈이가 처음 세상에 나와 울음소리를 내었을 때 이렇게 늦게나마 한 아이의 부모가 될 수 있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 드렸습니다. 무탈하게 하루하루 성장해 가는 세훈이의 모습을 보면서 저희 부부는 매일매일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립니다. 그리고 유아세례를 통하여 세훈이가 하나님께 속한 아이임을 고백하며 세훈이가 점점 예쁘게 성장하고 또 성인이 되어서도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부모인 저희들이 먼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아이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아이에게 이렇게 살라고 지시하기보다는 부모가 평상시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접하며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이를 통하여 세훈이가 성장하여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영접하는 크리스찬으로 항상 살아가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저희 부부는 항상 하나님께서 특히 저희 부부를 사랑하심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좋은 부모 형제를 주셔서 큰 사랑을 받고 자라게 하시고, 또 성인이 되어서도 부족함 서로에게 아름답고 착한 배우자를 만나게 하시며, 또한 세훈이를 자식으로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중에서도 가장 큰 은혜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추악한 세상에 보내시어 고초를 당하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악한 죄를 사하신 것입니다. 이 중요한 사실을 세훈이가 성장하면서 꼭 깨닫기를 바라며, 다시 한번 세훈이에게 유아세례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드리며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장영준, 박지혜 (유아세례자: 장 윤)

우선 소중한 우리 가정의 두번째 기쁨과 사랑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가족은 조금은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세대가 함께하는 기독교인의 삶, 이번 장운이를 주심으로 인해 모든 세대가 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기독교인으로써 모든이에게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족이 운이를 주신 것에 대해 그저 감사하는 것 뿐만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가족이 노력하며 성실히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귀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주신 소중한 두번째 선물을 바르고 신실한 하나의 인격체로 키우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며 한 가정의 부모로서도 올바른 삶을 살게 해 주시기를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일과 공부에 매진하느라 가끔씩은 힘이 들 때도 있지만 소중한 내 가족이 있는 집에 돌아 왔을 때 편한함을 느끼고 장운을 통해 항상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보고 배우고 있습니다. 가끔은 이런 모든 일상사가 진정한 기쁨이고 행복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질려고 욕심을 부릴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현재 가진 것에 만족하고 최선을 다하는 길이 하나님에게 더욱 가까이 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번 장운의 세례를 통해 항상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모든것을 행하는 가정이 되겠다는 결심을 해봅니다.



독고 훈/이근희 (유아세례자: 독고 별하)

저희 부부는 결혼 후 1년정도 서로 한국과 미국에서 떨어져 지내게 되었고 여러가지 이유로 2년 정도는 아이 계획 없이 살기로 하였습니다. 그런 와중에 혹시나 아이가 생기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과 또 반대로 그래도 생기면 좋겠다라는 말도 안되는 이중적인 생각을 하며 살았습니다.

2년후 아이를 가지기로 하고 노력했지만 뜻대로 쉽게 아이가 생기지 않았고 그때부터 눈물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처음으로 부청 수련회를 가게 되었고 수련회를 통해 제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지 제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아닌 제가 원하는대로만 바라며 기도하며 얼마나 부끄러운 삶을 살았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후

어느때보다 마음이 은혜로 가득차 편안하고 따뜻해졌고 얼마 지나지 않아 천사같은 아기가 저희 부부에게 찾아와 주었습니다.

10 개월 동안 계속된 입덧으로 괴로우면서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내려주신 축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뱃속 아이의 태동을 느끼며 눈물로 감사의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모릅니다. 남들보다 몇 배는 더 긴 산고의 고통속에서도 버티고 버티 처음으로 아기 울음소리를 들은 순간, 아기를 안아본 순간, 하나님께서 무사히 우리 아기를 지켜주셨구나 하는 생각에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힘든 산고를 겪었음에도 빠른 회복으로 아이를 잘 돌보고 어루만질 수 있게 해주셔서 그 또한 얼마나 감사한지....

아이를 키우며 양육하는 가운데 지금이야 말로 하나님께 가장 많은 감사의 기도와 진심 어린 기도를 하는것 같습니다. 때로는 육아에 지쳐 힘들고 저희의 마음대로 되지 않아 화도 나지만 하나님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닌 저희의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듯이 저희 또한 부모가 원하는 기준이 아닌 아이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야겠다는 반성도하게 됩니다. 앞으로 아이와 함께 할 소중한 시간들 속에서 늘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기도와 뜨거운 눈물의 기도가 끊이지 않길 소망해 봅니다. 아직도 어설피고 힘겨워하는 늘 부족한 부모이지만 언제나 하나님께 의지하며 아이에게 조금더 나은 부모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어느덧 정신 없이 시간이 흘러 아장아장 걸어다니며 아빠 엄마라고 부르며 방긱방긱 웃는 아이. 어느덧 1 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세식구가 함께 첫번째 생일을 축하하며 촛불에 불도 붙이고 힘들고 어려운 육아 속에서도 이런 작은 행복들 하나하나를 모아 하나님께서 아이를 더 사랑하며 양육할수 있는 힘을 저희에게 주시는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최재원

[지금 여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 11:28).

주님께서 크신 사랑으로 하찮은 죄인을
당신에게로 부르셨습니다.

이 초대장을 손에 들고 저는 얼마나 오래 망설여
왔던지요...

언제가는 받을꺼야.

하지만 아직은 아니야. 좀더 준비가 필요해!

세례를 신앙의 완성으로 생각하던 저는 늘 이렇게 미루어 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출발점이며



먼 길을 가야하는 새로운 여정이 남아있다.

오히려 더 어려운 길이다. 하지만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며 유일한 길이다.

너는 이제 피할 수 없다.

저는 세속적 성공과 사람들의 인정을 위해 살았고 수많은 우상들을 섬겨왔습니다. 그 때는 그것들만을 알고 신뢰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우상들이 가져다 주는 찰나의 즐거움에 집착했고, 더 나아가 제 자신이 저를 구원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어리석게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저에게 주어졌던 모든 어려움과 고난은 이러한 어리석음에서 기원합니다.

그런 저를 무던히도 참아 주셨던 주님은 가장 적절한 시간에 절묘한 모습으로 저를 품어 주셨습니다. 그 크신 사랑에 저는 오히려 당황했고 주님의 집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문지방에 한 발을 올린 채로 몇 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길은 무서운 길이며 이분은 내가 그동안 알아온 우상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한 발 더 내딛으면 끝이다. 넌 돌아올 수 없다.

그러나 이미 저는 주님께 잡혀 있었고 어디로도 도망갈 수 없었습니다.

어느덧 문지방에서 내려왔고 제 발은 자연스럽게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주님께서 저의 구세주이심을 믿고 그 분이 지나오셨던 발자취를 더듬어 갑니다. 그분의 말씀이며 약속인 성경을 길잡이 삼고 '서로 사랑하라'던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나아갑니다. 이 길 안에서는 제 욕심이 아닌 주님의 음성이 인도하실 것을 압니다.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 형식적이었던 예배가 마음을 드리는 예배로 바뀌어 가고 교우들과 함께 나누는 성경공부모임은 더욱 큰 은혜를 느끼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실천하려고 노력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주님의 이러한 말씀 안에서 큰 위안과 은혜를 받고 용기를 얻어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주변을 돌아보고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며 제게 주어진 소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는

지금 여기에서 다시 출발합니다.

위태롭고 무서운 외길입니다.

그러나 이미 망설임은 설레임으로 바뀌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두렵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 11:6)

교회 행사 및 광고

담임목사 동정

이영길 담임목사님은 6/17-25 일 오레곤주 포틀랜드시에서 열리는 제 222 차 미장로교 총회 (PCUSA General Assembly) 에 총대 (총회대표)로 참석하였습니다. 이번 총회에서 이목사님은 Ecumenical and Interfaith Relations Committee 의 Moderator 를 맡았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하는 총회에서 한 Committee 를 인도하면서, 한인으로써 아주 의미있는 일을 담당했습니다. 이번 총회에서는 Co-Moderators (동사 총회장)으로 Rev. Denise Anderson 과 Rev. Jan Edmiston 이 선출되었고, 서기장으로 Rev. J. Herbert Nelson 이 선출되었습니다.

아울러 남아프리카의 인종차별과 injustice 에 반대하며 작성된 Belhar Confession 이 미국장로교(PCUSA) 신앙고백서에 채택되는 역사적 결정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새롭게 출간되는 PCUSA 신앙고백서에 Belhar Confession 이 추가되겠습니다.



집사회 소식

안녕하세요 보스턴 한인교회 교우 여러분!

집사회에서 인사 드립니다.

이제 너무도 아름다운 단풍으로 보스턴을 수 놓을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우리 교우 모두 최고의 가을을 맞이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10 월에 집사회 주관으로 진행된, 또 앞으로 진행 될 주요 행사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10 월 9 일 Watertown Arsonal Park 에서 2 부 예배 후 불고기와 핫도그를 점심 메뉴로 함께 먹고 얘기 나누며 서로를 알아가는 전교인 야유회를 가지려고 했습니다. 특별히 올해부터 전교인 야유회를 가을에 진행함으로 새로 보스턴으로 오시는 신입생들과 박사후 과정으로 오시는

분들을 가능한 많이 모시고 복음도 전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허리케인 Matthew 의 영향으로 토요일부터 비가 오기 시작해 안타깝게도 야유회를 취소하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회 임원들에게 비록 좋은 날씨에 밖에서 고기 먹으며 즐거운 시간은 갖지 못했지만 대신 허리케인으로 큰 피해를 입은 아이티를 보게 하시며 미리 주문해 놓은 고기를 아이티에 보낼 기금 마련 바자회를 진행할 수 있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교우님들이 기금 마련 바자회에서 남은 모든 고기를 사주시면서 많은 분들이 기부도 함께 해주셔서 청년 1,2부, 부부청년부, 그리고 유스그룹 아이들에게 점심으로 제공한 후 3분의 2 정도 밖에 남지 않은 고기를 팔았는데 살 때 사용했던 금액의 90% 이상을 모금하는 오병이어의 기적도 체험했습니다. 도와 주시고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 드립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 사는데 그 중에 특별히 우리들을 구별하여 보스톤 한인 교회를 함께 섬기고 서로 사랑하는 교우들로 삼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남선교회 소식

남선교회 주최 장학기금 모금 골프대회가 아래와 같이 개최됩니다.

일시: 10월 29일 (토) 오전 9시 반

장소: Braintree Municipal Golf Club

회비: 100불

*관심 있으신 분은 남선교회 최정열 집사님께 연락 바랍니다.

장학기금 모금 골프대회는 브레인트리에 있는 골프장에서 개최하며, 목표 모금액은 \$3,000입니다. 이 장학기금으로 우리 교회의 청년들에게 \$2,500, 그리고 Brookline High School 에 \$500을 우리 교회 교육위원회 이름으로 지급합니다. 올해부터는 뽑힌 교회청년들에게 간단한 에세이도 요청하려고 합니다. 매년 도와주시는 장로님, 집사님, 그리고 모든 남선교회들께 감사를 드리며, 특히 골프대회 참석은 못하지만 정성으로 도와주시는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주변 주차안내

최근 교회 주변 주차장 미터기가 금, 토요일에는 오후 6시가 아니라, 오후 8시까지 Fee를 넣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금/토요일은 교회 맞은편 Starbucks 뒷쪽에 있는 20 Kent St. Parking Lot을 사용할 수 있도록 rent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금요일(6pm- Midnight), 토요일(7am- midnight)에는 Kent St. 주차장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주일에는 계속해서 Brookline Townhall 지하주차장 (333 Washington St., Brookline; 입구는 타운홀 왼쪽)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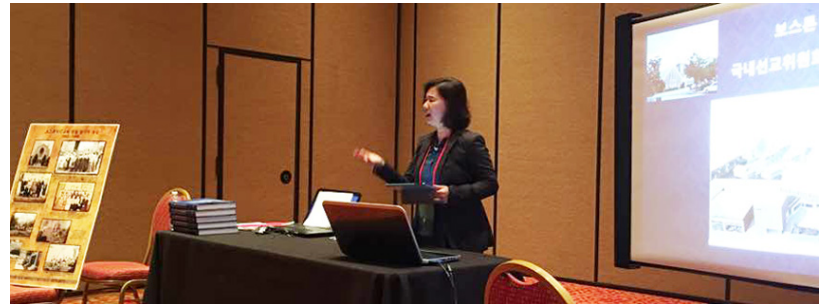
교단 소식

NCKPC (미국장로교 한인교회 전국총회) 소식

NCKPC 제 45 회 정기총회 및 전국대회가 "정의, 평화, 선교: 한인교회의 공동체적 사명(미 6:8)"이라는 주제로 6월 28일(화)부터 7월 1일(금)까지 Embassy Suites by Hilton Norman, OK 에서 총 220여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성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국내선교 사례 발표로는 현재 교단과 각 교회에서 섬기시는 귀한 사례들을 발표해 주셨습니다. 특히 윤경문 목사님은 보스톤 한인교회 국내선교사역 (Oasis Café Music Night) 소개를 해주셨고, 김정선 장로님은 “보스톤한인교회 60년사” 편찬 과정 이야기를 나누어 각 교회의 역사편찬을 계획하는 회원들의 관심을 모았고, 200권의 보스톤한인교회 60년사 책자를 참석한 회원들에게 배부하였습니다.



6월 30일(목) 사무총회를 통하여, 새로 총회장에 심평중 목사(로턴 한인장로교회, OK)가 선출되었고, 그동안 평신도 부총회장으로 섬기던 김한나 권사님은 이번 총회로 임기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NCKPC가 한인교회들의 위상과 이익을 도모하는 기관이라는 것을 대외적으로 부각시키기 위하여 명칭을 National Council of Korean Presbyterian Churches 에서 National Caucus of Korean Presbyterian Churches 로 변경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시내산 동우회



시내산 동우회에서는 9월 5일 Labor Day에 가을 산행을 Mt. Major로 갔습니다. 멀지 않고 힘들지 않는 곳이지만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Mr. Major 산행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여 자연과 하나되어 호흡하는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늘소리 사물놀이 동우회

지난 9/10일- Boston Common에서 열린 Asian American Day(AA Day) 행사에 하늘소리 팀이 참여하여 많은 중국인들과 아시아인들 앞에서 좋은 공연을 펼쳐주었습니다. 아울러, 10/1(토)에는 보스톤에서 열리는 '한국의 날' 행사(오전 11시 시작)에 참여하여 사물놀이 연주를 합니다(오후 1:30분).

탁구 동호회 소식: "제 4회 전교인 탁구대회"

제 4회 전교인 탁구대회가 오는 10월 23일(주일) 1시 30분부터 친교실에서 열립니다. 교회게시판에 참가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탁구동우회에서는 계속해서 매주 목요일 오후 7시부터 친교실에서 연습 모임을 가집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간편한 운동복/운동화를 착용하시고 오시면 됩니다. 연령이나 기술에 제한은 없고 회비도 없습니다. 초보자에게는 Lesson도 제공되며, 우리 교회 교인 뿐 아니라 타교회 혹은 교회에 다니지 않는 분들도 환영합니다.

새교우 환영반 소식

우리 교회에 새롭게 오신 교우님들을 환영하기 위하여 교인 1 부 위원회에서는 새교우 환영반을 3주간에 걸쳐 실시하고 있습니다. 새교우님들의 소개와 신앙의 여정을 함께 나누며, 아울러 우리 교회의 비전과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에 대해 배우는 시간들을 가집니다.

지난 9 월에도 3 회(9/11, 18, 25 일)에 걸쳐 새교우님들과 귀한 만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9 월 새교우 환영반을 참여하시고 수료하신 분들은 김미경, 이재혁/이지나, 임상균/오주경, 류연규, 엄상원/김경진, 최진국/이정은 교우님이십니다.

우리 교회 새가족이 되신 것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이 새교우님들을 환영하는 파티를 베풀어 주신 이정규/김영미 장로님덕에 감사를 드립니다.





2016 전교인 여름수양회 - Pilgrim Pine Retreat Center

FOR MORE
PICTURES:
GOOGL/YjW
urV



제직 안수 및 임직식



쉐마의 밤

READ ONLINE



보스톤 한인교회

The Korean Church of Boston (PCUSA)

For more info · www.kcboston.org

goo.gl/z8JjHA